

## 팔정도부처님 불사 시주 동참 권선

건학108돌, 봉불50돌

「청동석가여래입상 개체불사」

동참 불자님은 청동판에 이름을 새겨드리며 정성껏 축원,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정각원사무실 ☎ 2260-3016~20

### 토요법회 식순

#### < 1부 > 기도법회 (법요집 참조)

오늘영상 - 고려불화 (금강경독송회)

#### < 2부 > 불교대강좌

- 주 제 : “문학과 나의 인생” [재출간 책 봉정, 사인회]
- 법 사 : 남지심(소설가)

♪ 오늘의 찬불가 “보현행원” 법요집 p.53

### 이달의 초청강좌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11.22(토)	나의 신행이야기	박상관 (운영지원본부장)
11.29(토)	기타선율에 법문을 실어	지담스님 (동림회 사무차장)
12.6(토)	대각전 원불봉안법회	원장스님

#### ◎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 매주(토) 법회 후 13:30~

구 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요경스님	법학관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수행반	달라이라마 행복론	마가스님	만해관 좌선실
한시반	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다정산방

베트남 전쟁의 「상처와 치유」를 위한 '세종학당' 건립기금 마련

## 자선 음악회

- 일 시 : 2014. 11. 20(목) 19:30~
- 장 소 : 국립극장 '청소년 하늘극장' (정충동2가 14-67)
- 티 켓 : 100,000원(A석)
- 출연진 : 중앙국악관현악단, 김덕수와 사물놀이, 안숙선, 김영임 외 다수

※ 후원계좌 - (사) 국제연꽃마을

### ★ 정각원 행정 편제 개편 및 실장직 신설 ★

편제변경 : 「정각원 사무실」 ⇨ 「정각원 행정지원실」

신임실장 : 고제선(행정지원실장) \*11.10일부

### ♪ 정각원 합창단 첫 뮤직비디오가 탄생! 하였습니다 ♪

You Tube 에서 “정각원합창단”을 검색하시고  
널리 홍보하셔서 조회수도 많이 올려주세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 불교대학원 학생 모집

### “취염상정(處染常淨)”



연꽃처럼 탁하고 오염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물들지 않고 항상 맑고 청정한 품성을 간직하라

- ◎ 지원자격 : 국내·외 정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
-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융합요가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생사문화산업학과, 명상심리상담학과
- ◎ 접수기간 : 11. 14(금) ~28(금)
- ◎ 면 접 : 12. 13(토)

문의 : 불교대학원 ☎ 2260-3096,8

### 보시동참

#### 11월 10일 불전 공양

₩ 1,098,000원

권복숙, 권혁채, 김동연, 김민정, 김시현, 김신애, 김종관, 김희년, 남창강, 박성진, 서기원, 안대준, 원서준, 윤호문, 이기형, 이봉자, 이성부, 이세진, 임복순, 장은혜, 조분옥, 주해선, 주호빈, 주호성, 최선자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732,000원

(법사비, 토요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 인등 보시

권진욱, 김용순, 김현진, 이용순, 이태윤

#### 공양 보시

❖ 불단 과일 : 정각원신도회

❖ 불단 떡 : 이보현, 조찬미, 한승윤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365일 108배 릴레이정진  
동참 연인원은 현재 5539명 입니다.



#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 장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8(2014)년 11월 15일 제267호(週刊)



선악의 결과는 메아리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러므로 함부로 업을 지어 괴로움을 불러들이지 말라.

「 니건자경 」

정각원 소나무에 핀 우담바라

## 총무원장 자승스님 동국대 야구부 4관왕 축하격려방문



◎ 12일(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김희옥 총장님, 정각원장 스님께서 37년 만에 대학야구 4관왕을 달성한 본교 야구부 선수단(감독 이건열)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은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하고 프로리그에 진출해서도 동국대와 야구부를 빛내줬으면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야구부는 이번 우승으로 지난해 3관왕과 올해 4관왕에 오르면서 2년간 7관왕을 달성한 첫 번째 대학으로 기록되며, 108주년을 맞은 동국의 이름을 더욱 빛냈습니다.

## 11월 교직원 정기법회



◎13(목) 금강경독송회 김원수 원장님(사)바른법연구원을 모시고 교직원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200여명의 교수·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의 금강경”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해주셨으며, 불자님들을 위해 오는 12월 13일(토) 토요일법회에도 모실 예정입니다.

## 【 대각전 원불 봉안법회 안내 】



◎ 12월 7일(토) 「대각전」에서 願佛봉안식이 토요일법회와 함께 봉행됩니다. 봉안불자는 물론, 일반 신도 모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불기2558. 12. 6(토) 10시~12시
- \* 장 소 : 대각전(이해랑예술극장 2층)
- \* 봉안신청 : 願佛(1佛) 100만원이상
- \* 문 의 : 정 각 원 02)2260-3016~20  
대외협력본부 02)2260-8992,3

# 문학과 나의 인생

## < 법사소개 : 남지심 (소설가) >



● 강릉출생,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 주요저서

장편소설 『우담바라 1, 2, 3, 4』 『솔바람 물결소리』, 『연꽃을 피운 돌』

다큐소설 『담무갈 1, 2, 3, 4』 권과 『청화 큰스님 1, 2』, 『자비의 향기 육영수』

수필집 『톨스토이와 흰 코끼리』

## 『솔바람 물결소리』 프롤로그

『솔바람 물결소리』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35년 전 일이다. 이 책으로 해서 나는 소설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얻었다.

『솔바람 물결소리』를 쓸 때 내 나이는 36살, 지금 생각해 보면 풋풋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젊은 나이였는데, 나는 그때 왜 그렇게 죽음의 문제에 매달려 있었는지 모르겠다. 주인공 강기혜를 그 때 내 나이인 30대 후반에 폐암으로 죽게 한 후 35년의 세월이 흐른 금년 봄, 나도 폐암 수술을 받았다. 폐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내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솔바람 물결소리』였다. 뿌린 씨를 거두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 책이 처음 독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국내에 있는 독자들은 물론 미국, 호주, 일본 등지에 있는 교포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 줘, 출판 첫 달에 8쇄를 찍은 기록을 세웠다. 돌이켜보면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후로도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절판이 된 이후에도 꽤 오랜 세월 동안 『솔바람 물결소리』를 구하고 싶다는 독자들의 전화나 편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30대 후반에 썼던 책을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내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 놓아도 크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 작가로서의 양심이다. 진실한 만남, 진실한 사랑은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늘 지고(至高)의 가치라고 믿고 있어서이다. 『솔바람 물결소리』가 다시 한 번 잔잔한 물결이 되어 독자들 가슴속으로 스며들기를 순일(純一)한 마음으로 기원 드린다.

『솔바람 물결소리』를 탈고한 후 나는 그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세 아이들 자운이, 혜강이, 덕이를 고아로 팽개쳐 놓은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2년 후 다시 속편을 쓰게 되었고, 그 책이 『연꽃을 피운 돌』이다.

## 『연꽃을 피운 돌』 프롤로그

<술바람 물결소리>에서 주인공 강기혜가 죽자, 그녀에게 의지해 살았던 세 아이들인 강기혜의 딸 자운이, 강기혜의 제자 혜강스님, 강기혜의 집에 가정부 아들로 들어와 성장한 덕이가 마치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그런 2년쯤 후, 나는 그 아이들을 다시 한 번 끌어안고 싶은 열망으로 후편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쓰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것은 주인공 자운이가 다술스님을 사랑했던 엄마처럼 혜강스님을 사랑하고 있어서였다. 나는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다는 당혹감 때문에 쓰던 원고를 밀어 놓고 얼마간 지났다. 그러나 세 아이들이 펼쳐 보이는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밀쳐놓았던 원고를 다시 끌어안지 않을 수 없었다.

<연꽃을 피운 돌>의 원고를 탈고한 나는 다시 한 번 가슴속에서 통증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것은 자운과 혜강스님의 사랑이 너무 애절해서였다. 아! 이 애절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두 사람의 사랑을 놓고 혼자 오랫동안 고심했다. 자운이와 혜강스님, 이 두 사람을 한 생 동안 같이 살게 할까? 아니면 사랑을 초극해 각자 구도의 길을 가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인연을 정리하게 하는 것인지 작가인 내 지혜로는 그 답이 얻어지지 않았다.

<술바람 물결소리>를 쓴 후 세 아이의 생을 정리해 주고 싶어 속편<연꽃을 피운 돌>을 썼는데, 막상 쓰고 나니 숙제를 정리한 게 아니라 가슴 속에 또 다른 숙제가 남았다. 이 숙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만 아릴뿐 그 답이 얻어지지 않는다.

이 명제는 한 번쯤 공론이 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독자들한테 묻고 싶다.

자운과 혜강스님의 애절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한 생을 살게 해서 인연의 고리를 풀게 할까요, 아니면 사랑을 초극해 각자 구도의 길을 감으로써 인연의 고리를 풀게 할까요?

### 재출간 소설(2권)구입 및 사인회 안내

- 법회 후 소설가 남지심님께서 직접 사인해 드립니다.
- 정각원 신도님들께 특별할인가(10,000원)로 제공해 드립니다. (후불가능)

#### <술바람 물결소리>



한 여인이 이룰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바라보는 삶의 모습 그려  
애쓰지 않은 '깊이', 꾸밈없는 단단함

▲ 애기꾼 펴냄 | 정가 13,500원

#### <연꽃을 피운 돌>



전편에 남은 '세 아이들'이 집필 동기  
절절한 사랑, 진지한 삶 설법처럼 흘러  
아픈 사랑 결론 못내 독자에게 물어

▲ 애기꾼 펴냄 | 정가 13,500원